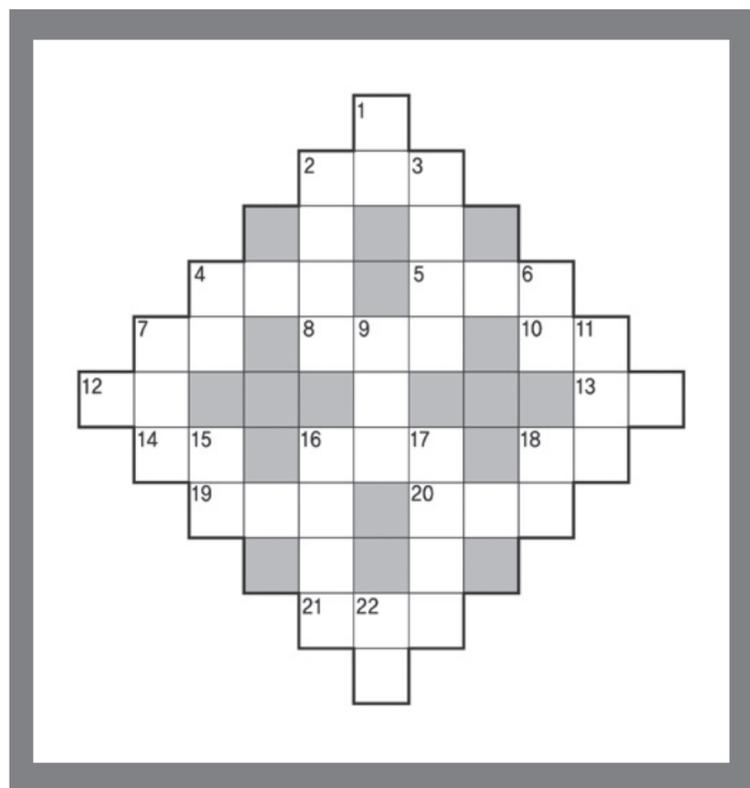


{ 심심풀이 낱말풀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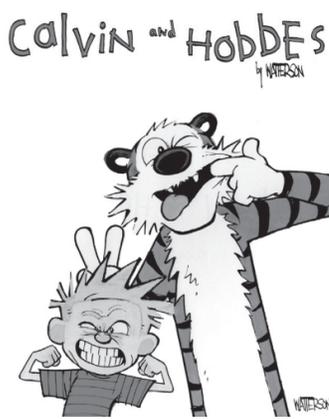
<가로 열쇠>

- 2)책, 논문 등의 첫머리에 그 취지나 내용의 대강을 간략하게 적은 글.
- 4)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 ○○○를 치르다.
- 5)화산의 분출물을 내뿜는 구멍.
- 7)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자그마한 향아리.
- 8)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기계.
- 10)서로 애뜻하게 이별함. 또는 그런 이별.
- 12)오늘의 아재 개그, 자동차를 세게 치면 '카놀라유', 그렇다면 살짝 치면?
- 13)술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
- 14)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
- 16)아주 추운 지방이나 높은 산지에서 언제나 녹지 않고 쌓여 있는 눈.
- 18)물질·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녹지 ○○.
- 19)물고기를 인공적으로 길러 번식시키는 곳.
- 20)이성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생기는 마음의 병.
- 21)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타격이나 상태.

<세로 열쇠>

- 1)삼국 시대부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 말을 적던 표기법.
- 2)벼슬이 높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일.
- 3)사무 처리나 회계 결산 등을 위해 일 년을 네 시기로 나누었을 때, 그 네 번째 기간.
- 4)마을이나 지역 등에서 이름이 나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 6)모퉁이의 안쪽.
- 7)모바일 메신저에서 단체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이르는 말.
- 9)나이가 12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
- 11)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 갑자기.
- 15)저녁때의 햇빛. 낙조.
- 16)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음.
- 17)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18)군대에서, 가고·토목·건설·측량·폭파 따위의 임무를 맡고 있는 병과.
- 22)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밭자리나 집터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오늘의 역사 (1988년 10월 2일) 제24회 서울올림픽 폐막



1988년 9월 17일부터 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올림픽이 1988년 10월 2일 폐막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160개 IOC회원국에서 1만 3,303명의 선수단이 참가, 237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

을 벌인 결과 소련이 금메달 55개로 메달순위 1위를 차지했고, 동독이 37개로 2위, 미국이 36개로 3위를 차지했으며 개최국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4위를 기록했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권 국가들의 참가거부로, 1984년 LA올림픽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참가거부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던 데 반해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가 모두 참가한 지구촌의 대결장이었던만큼 세계신기록 33개, 올림픽신기록 225개가 쏟아져 나오는 등 풍성한 기록을 남겼다.

사진설명: 서울올림픽 폐막식 모습.

그해 오늘 무슨일이...(10월 2일)

- 2008년 탈런트 최진실 사망
- 2004년 '안타 제조기' 스키 이치로, 260개 최다안타 신기록 수립... 시슬러 1920년 기록 경신
- 1999년 80년대 농구 스타 김현준 코치 교통사고 사망
- 1998년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1997년 한국-칠레, 무역산업협력협정 체결
- 1997년 유럽연합 15개국 외무장관들, 통화통합 국경철폐를 골자로 한 암스테르담조약 체결
- 1995년 미국 미식축구선수 O.J.심슨 무죄판결
- 1994년 일본 자위대 병사47명 르완다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이르 고마시에 도착
- 1994년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개막
- 1985년 록 허드슨, AIDS로 사망
- 1982년 이란방송, 테헤란서 폭발사고로 사망 60명, 부상 700명 발표보도
- 1981년 이란 대통령에 호자틀레슬람 알리 하메네이 선출
- 1977년 인도 前 수상, 간디여사 독직혐의로 체포
- 1973년 핀란드의 육상선수 누르미 사망 - 1920, 1924, 1928년 올림픽서 6개의 금메달 획득
- 1972년 코펜하겐서 사상초유의 성(性)박람회 개최
-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 국회통과, 공화당 항명파동 유발
- 1970년 한국-엘살바도르, 무역협정 체결
- 1968년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마르셀 뒤샹 사망
- 1963년 대통령 임후보자 허정, 야당단일후보 위해 사퇴선언
- 1960년 효창운동장 준공
- 1958년 문교부, 외래어표기 5원칙 수립을 발표
- 1955년 세계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가동 중단
- 1950년 유엔의 소련블럭, 한국군 임시휴전협상안 제의
- 1869년 마하트마 간디 출생
- 1852년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 나폴레옹3세로 즉위(제2제정 시작)
- 1187년 살라딘, 기독교인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함락
- 322년 아리스토텔레스 사망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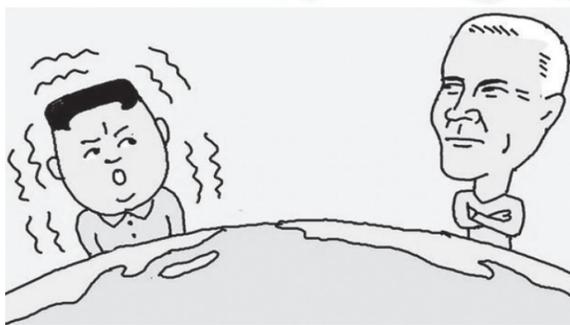
TODAY HISTORY PRESENT YESTERDAY THAT'S MYSTERY

" _____ is _____, tomorrow is a _____, but _____ is a gift. _____ why we call it the _____."

-Warren Buffett 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맨 밑에..

이주의 영어 한마디

美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對北 정책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예측 불허하다. 그런 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담판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바이든은 김정을 독재자(dictator), 폭군(tyrant)으로 부른다. 트럼프의 요란스러운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코웃음을 친다(scoff at his flashy summits with Kim). 자신은 핵무기 문제에 관한 타결 없이는 상대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북한은 그런 바이든을 IQ 낮은 바보라고 맹비난한다. '치매 말기인' (be in the final stages of dementia) 늑대리'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할 미친개(rabid dog who should be beaten to death with a club)'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call him all sorts of names).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pending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바이든이 북한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취임 이전에(before his presidential inauguration)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를 저지름(launch provocative actions including some long-range missile testing)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향후 협상에 앞서 미리 지렛대를 확보하기(gain leverage ahead of future negotiations) 위해서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위협적인 시험 중단에 응하겠다는(agree to stop the menacing tests) 시늉을 하면서 자신들이 포기한(give up)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려는(demand a benefit in return) 심산이다.

바이든은 북한이 핵탄두(nuclear warheads) 증강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김정은과 마주하는 대면 회담(face-to-face meeting)은 갖지 않을 전망이다.

김정은은 이에 맞서 치명적인 제재를 철회해야(pull back crushing sanctions)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shut down the nuclear facility)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자신이 거부하는 척 배짱을 부릴(pluck at his boldness)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면 급격한 변화(dramatic change)는 없을 것이라고 NPR은 진단한다. 이번 대선이 북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후보(candidate committed to invading the North)와 주한미군을 철수할 준비가 돼 있는(be prepared to withdraw US troops out of the South) 후보 간의 공약 대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곤혹스러울(feel perplexed)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정책을 복원하겠다고(bring back a stable and traditional policy) 공언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허풍 섞인 담판 전술은 잘 먹히지 않게 된다. 트럼프처럼 쉽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북한으로선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be a big thorn in the flesh).

Answers: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